

국외출장보고서

[청년·청소년 세대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연구]

202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I. 연수목적	1
II. 연수개요	1
1. 연수주제	1
2. 연수 국가 및 기간	1
3. 연수 대상자	1
4. 방문 기관	2
5. 연수일정표	2
III. 연수 국가 정보	3
1. 독일	3
2. 체코	6
IV. 일정별 세부 연수내용	8
1.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면담·협의	8
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방문 면담	9
3. 독일 연방의회 방문 면담	11
4.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방문 면담	16
5. 체코 하원의회 방문 면담	21
6. 체코 시민교육센터 방문 면담	23
V. 평가 및 시사점	26
1. 학습자 지향적 민주시민교육	26
2. 적극적인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	27
3. 시사점	28

독일 · 체코 국외연수 결과 보고

I 연수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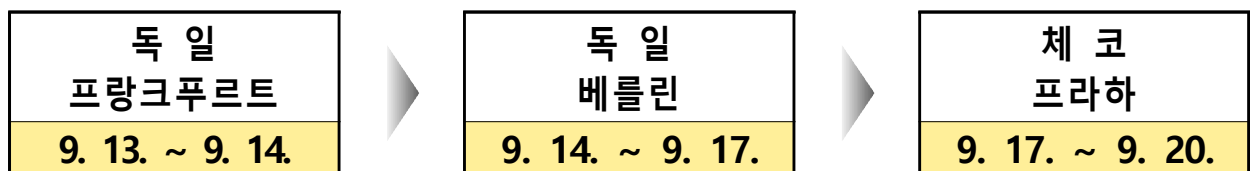
-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 · 청소년 세대 정치 참여 기반이 확장됨에 따라 주권자로서 청년 · 청소년의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진 모델 연구
- 민주시민교육 선진국의 청년 정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정치인 양성 정책 및 청소년 · 청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교 · 분석

II 연수개요

1 연수주제

- 청년 · 청소년 세대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2 연수 국가 및 기간



3 연수 대상자

지 역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 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박 태 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김 지 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윤 정 빈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기	이 상 은	
충 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민 재 원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오푸름솔	

4 방문 기관

-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미디어센터
- 체코 하원의회(Parliament of the Czech Republic-Chamber of Deputies)
- 체코 시민교육센터(Centrum Educationis Civium)

5 연수일정표

일 자	장 소	주 요 일 정	비 고
9. 12.(화)	인 천	인천 출발	
9. 13.(수)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재외선거관) 방문 ▫ 독일 연수 자료 준비 및 토의 	
9. 14.(목)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베를린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방문 ▫ 면담내용 정리 	
9. 15.(금)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의회 방문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미디어센터 방문 ▫ 면담내용 정리 	
9. 16.(토)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수 자료 정리 및 토의 	
9. 17.(일)	베를린 프라하	프라하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연수 자료 준비 및 토의 	
9. 18.(월)	프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하원의회 방문 ▫ 체코 시민교육센터 방문 ▫ 면담내용 정리 	
9. 19.(화)	프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자료 총 정리 및 토의 	
9. 20.(수)	프라하	프라하 출발	
9. 21.(목)	인 천	인천 도착·해산	

Ⅲ 연수 국가 정보

① 독일

가. 기본현황

일 반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
	수 도	베를린
	인 구	약 8,329만명
	면 적	357,386km ² (한반도의 약 1.6배)
	종 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등
	언 어	독일어
정 치	국가형태	연방공화제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양원제(하원: 736석, 상원: 69석)
	주요인사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총리: 올라프 솔츠(Olaf Scholz) 연방의회의장: 배르벨 바스(Bärbel Bas)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녹색당,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경 제	GDP	4조 721억 달러
	1인당 GDP	53,390달러
	화 폐	유로(Euro, EUR)

나. 정치제도

(1) 의 회: 하원(연방의회)과 상원(연방참사원)으로 구성

- 하원의원은 1인 2표제(지역구, 비례대표)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며, 연방총리 선출, 예산 심의·의결, 내각 불신임 등 권한을 가짐

- 상원은 독일 16개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을 가부결권을 가짐
- 2021년 제20대 연방하원의원선거 결과

정 당 명	의석수	의석률
사민당	206석	28.0%
기민/기사 연합(CDU/CSU)	196석	26.8%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118석	16.0%
자유민주당	92석	12.5%
독일을 위한 대안(AfD)	83석	11.3%
좌파당(Die Linke)	39석	5.3%
남슐레스비히	1석	0.1%

(2) 내 각: 연방총리와 연방각료로 구성

- 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하원에서 선출되며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 구성권 등 정치적·행정적 권한을 가짐
-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한 경우에만 한하여 기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운용

(3) 연방대통령

- 대통령은 연방회의(연방하원의원 및 각 주에서 선출된 동수의 주 대표)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며, 연방총리의 추천 및 임명권, 법률안서명공포권, 연방의회소집요구권, 사면권 등을 가짐
- 2017년 연방대통령선거 결과

후 보 명	소 속	득표율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사민당	74.3%
크리스토프 부터베게	무소속	10.2%
알브레흐트 글레저	독일을 위한 대안	3.4%
알렉산더 홀트	자유유권자	2.0%
앵겔베르트 존네보른	해적당	0.8%

다. 민주시민교육

(1) 독일의 정치교육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연합국은 독일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시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 주도하에 계획적·체계적·전면적으로 정치교육이 진행됨
- 나치 독재를 경험한 독일은 민주주의·다원주의·관용 등 민주적 가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통일 이후에는 사회통합을 위해 민주시민 육성과 정치적 비판능력 함양에 주력

(2) 정치교육 체계

- 독일의 정치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 걸쳐 이루어짐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
연방정치교육원, 주 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등	교회, 시민단체 등	정당, 정당재단 등

- 공공영역에서는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수법 개발 등을 담당하고, 민간·정치영역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치교육 실시

(3)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

- 1970년대 냉전체제 하 좌우 이념논쟁·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1976년 정치교육이 정치적 갈등과 논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좌우를 망라한 교육학자·정치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 최소한의 원칙 합의

- (1)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 (2) **논쟁의 투명성**: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함
- (3) **학습자 지향성**: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체 코

가. 기본현황

일 반	국 명	체코공화국
	수 도	프라하
	인 구	약 1,049만명
	면 적	78,867km ² (한반도의 약 1/3)
	종 교	가톨릭, 무교, 개신교 등
	언 어	체코어
정 치	국가형태	공화제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양원제(하원: 200석, 상원: 81석)
	주요인사	대통령: 페트르 파벨(Petr Pavel)
		총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하원의장: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éta Pekarová Adamová)		
주요정당	시민민주당, ANO 2011, KDU-CSL, TOP 09 등	
경 제	GDP	2,909억 달러
	1인당 GDP	26,590달러
	화 폐	코루나(Koruna, CZK)

나. 정치제도

(1) 의 회: 하원(대의원)과 상원(원로원)으로 구성

- 하원의원은 임기 4년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법률 제정, 예산 심의·의결, 전쟁선포, 내각 불신임 등 권한을 가짐
- 상원의원은 임기 6년으로 선거구별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고 매 2년마다 의석의 1/3씩 교체되며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의 심의·의결권 등을 가짐

○ 2021년 하원의원선거 결과

정 당 명	의석수	의석률
ANO 2011	72석	36.0%
SPOLU(시민민주당, 기독교연합, TOP09)	71석	35.5%
PirStan(주지사 및 무소속연합, 해적당)	37석	18.5%
자유와 직접민주주의	20석	10.0%

(2) 내 각: 총리와 각료로 구성

-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행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솔하고 장관을 지명
- 체코 헌법은 총리가 취임하면 의회의 신임을 얻어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총리직에 있을 수 있음

(3) 대통령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5년의 임기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운영
- 국정행위 전반에 대해 3회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같은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시 대통령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음
- 2023년 대통령선거 결과(결선투표 기준)

후 보 명	소 속	득표율
페트르 파벨	무소속	58.3%
안드레이 바비시	ANO 2011	41.7%

다. 민주시민교육

(1) 체코의 시민교육

- 체코의 시민교육은 1919년 시민교육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며 시작되었으나 이후 나치 정권과 공산주의 독재로 시민교육이 정치적 선동과 세뇌교육 등으로 대체

-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에 NGO, 교육청·소년체육부(MŠMT), 대학, 학교, 전문가집단 등이 모여 시민교육센터(Civic Education Centre)의 설립 추진

- 2014년 체코 의회는 시민권 교육을 지지하는 선언적 결의안 채택

(2) 정치교육 체계

- 체코의 정치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진행
 - ① 아동 및 청소년: 학교를 중심으로 초·중등과정(시민학)에서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NGO(시민교육센터 등)와 협력하여 공식 커리큘럼 보완 실시
 - ② 성인: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정식교육, 비정규교육, 여가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으로 진행

IV 일정별 세부 연수내용

1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면담·협의

가. 면담일시: 2023. 9. 13.(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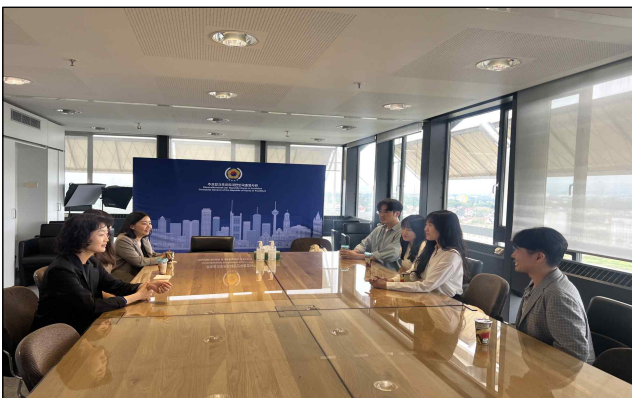
나. 장 소: 총영사관 회의실

다. 면 담 자: 프랑크푸르트 재외선거관

다. 주요 내용

- 독일의 정치환경, 선거제도 특징 파악
- 독일 연수일정 협의·조정 등 협조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운영상황 등 확인

라. 관련 사진



재외선거관과의 면담 진행 장면



면담 종료 후 단체사진

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방문 면담

가. 면담일시: 2023. 9. 14.(목)

나. 장 소: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회의실

다. 면 담 자: Dr. Daniel Schmücking

라. 주요내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어떤 기관인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재단으로 유럽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재단의 사명은 자유 및 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

○ 정당재단이란 어떤 의미인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재단이 정당활동에 구속되어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과 별개 조직으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함.

○ 재단의 활동방향은?

⇒ 재단은 독일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와의 협력·교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

○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 재단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청소년·청년 대상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학제도에 지원할 수 있으며 35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음.

○ 장학제도 수혜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 장학제도 수혜자 선발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장학제도 수혜자로 선발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세미나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일정 의무를 짐.

○ 장학제도의 다른 특징이 있는가?

⇒ 여러 세미나 등 참석을 통해 장학제도 수혜자 간의 유대관계 혹은 동창회와 유사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장학제도 수혜자 모임은 추후 장학제도 수혜자 선발 시에 심사자로 참여하기도 함.

○ 청년 정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 젊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올해는 2년의 기간 동안 4가지 모듈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함. 단,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대체 운영하였음.

○ 리더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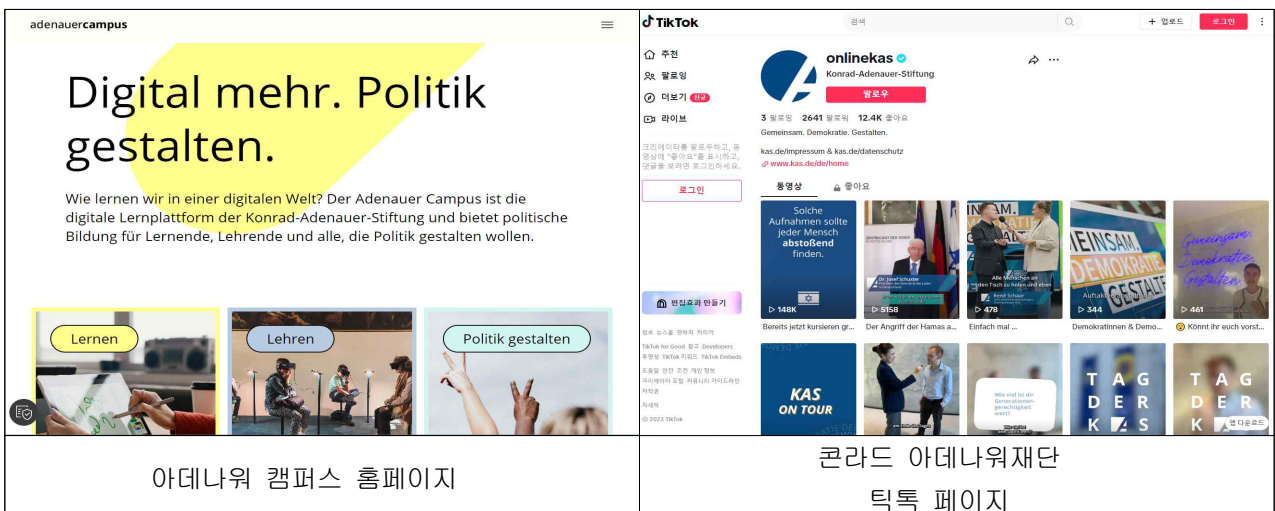
⇒ 이번 과정은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의 젊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전문가·정부 관료·정치인 면담, 네트워킹, 정치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됨.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민사회와 정치 조직의 역할과 기능, 지역 정치 및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의사소통 전략 및 기술, 수사법 등임.

○ 이러한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에서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인지?

⇒ 리더십 프로그램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지중해 남부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아시아권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 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재단의 활동 상황은?

⇒ 온라인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아데나워 캠퍼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청년층의 정치토론 등 정치참여활동 독려를 위하여 틱톡 및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소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함



마. 관련 사진



재단 직원과의 면담 진행 장면



면담 종료 후 단체사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기본 정보

1. 설립 연혁

- 독일 초대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의 업적을 기리며 설립된 정치재단 성격의 공익재단으로, 1956년도 기독교교육협회로 발족하여 1964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이 됨

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중점 사업

- 독일과 유럽, 전 세계의 사회적 결속을 위한 노력
-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과 유럽연합(EU)의 단합 도모
- 정치적 흐름 예견, 학문적 기반을 통한 조언 기관 역할

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자원 조달 및 지출

- 회비 납부 의무가 없어, 정부예산 혹은 후원금 등을 통해 자원 충당
 -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재정구조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의 비율은 약 92%
- 공적 자금을 통한 지출은 '프로젝트 비용'(국제협력, 장학사업, 세미나, 출판 및 전시, 연구 등)이 약 71%이며, 그 외에는 인건비 등 행정비용에 지출

③ 독일 연방의회 방문 면담

가. 면담일시: 2023. 9. 15.(금)

나. 장 소: 독일 연방의회 별관 회의실

다. 면 담 자: Franziska Stamm연구원 등 3인

라. 주요내용

- 독일 연방의회(하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 독일 연방의회(하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방식을 통해 선출됨. 지역구 의석은 총 299석으로 선거구별 다수득표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의석수는 299석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초과의회석(overhang mandates)과 보상의석(balance mandate)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의석보다 더 많이 당선되며 현재는 437석임(총 의석수 736석).
- 독일 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 독일 하원은 독일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연방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총리를 임명하거나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고, 행정부를 감시할 권한 및 연방 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청소년·청년층의 선거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 ⇒ 2021년 제2차 연방의회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낮은 편이긴 하나 대체적으로 7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함.
- 청소년·청년층의 정당에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 ⇒ 정당 당원 중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로 기존 정당들이 젊은 세대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예외적으로는 GRUNE당(녹색당)의 젊은 당원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정당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어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인가?
 - ⇒ 정당마다 가입 가능 연령에 차이는 있겠지만 10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젊은 계층이 선거 참여나 정당가입 등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은?
 - ⇒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젊은 세대는 정치가 자신의 생활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본인이 정치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가(engaged)에 대한 질문에는 그다지 강하게 몰입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정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높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젊은 세대의 낮은 정치참여 원인으로 추정됨.

※ 한편 정당 가입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기후 위기에 따른 시위 등에 있어서 많은 젊은 세대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의견도 있음.

○ 독일 내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분위기는?

⇒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자체는 권장되는 분위기이나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뉘는 편으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삶의 경험 또는 연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편임.

○ 의회 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얼마인지?

⇒ 20~24세 0.8%, 25~29세 5.7%, 30~34세 8.8%, 35~39세 10.9% 정도로 여전히 기성세대 정치인이 더 많으나,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역대 의회 구성 중 현원이 청년 정치인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임.

○ 청년 정치인 출마를 돕기 위한 법·제도적 혜택이 있는지?

⇒ 현재 청년 정치인의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탁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인 인센티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함. 일례로 비례대표 후보에 젊은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정당도 있음.

○ 의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 의회가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를 별도 운영 중임.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프로그램인 '유니오발(juniorwahl)'의 운영을 지원함.

mitmischen.de
Dein Portal zum Deutschen Bundestag

PARLAMENT WISSEN MEDIATHON MISCH MIT!

#freiwilligstark
„Sich freiwillig für andere einzusetzen, sollte kein Privileg sein“
Marie Böttner ist das Gesicht einer Petition, hinter der 100.512 Unterschriften und die Forderung nach besseren Bedingungen für Freiwilligenständeberechtigten stehen. Die 19-Jährige hat uns davon berichtet, wie es von vor dem Petitionsausschuss zu sprechen und wie es nun mit #freiwilligstark weitergehen soll.

PARLAMENTARISCHES PATENSCHAFTS-PROGRAMM 2023
Hauptstadt aus den USA
Johnes, 28, von Kalifornien nach Norddeutschland

청소년·청년을 위한 독일연방의회 홈페이지
mitmischen.de

KUPPLEKUCKER
Deutscher Bundestag
Gebärdensprache Leichtes Sprache Suche

Entdecke den Bundestag Deine Nachrichten Spiele Kinderkommission Lexikon Videos und Podcasts

Hallo Kinder, willkommen bei Kuppelkucker!
Hier erfahrt ihr, wie der Deutsche Bundestag funktioniert und was die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den ganzen Tag machen.

Hallo, ich bin Karichen!

어린이를 위한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kuppelkucker.de

○ 유니오발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 유니오발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임. 실제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까지 이뤄지며, 학생들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

□ 유니오발(Juniorwa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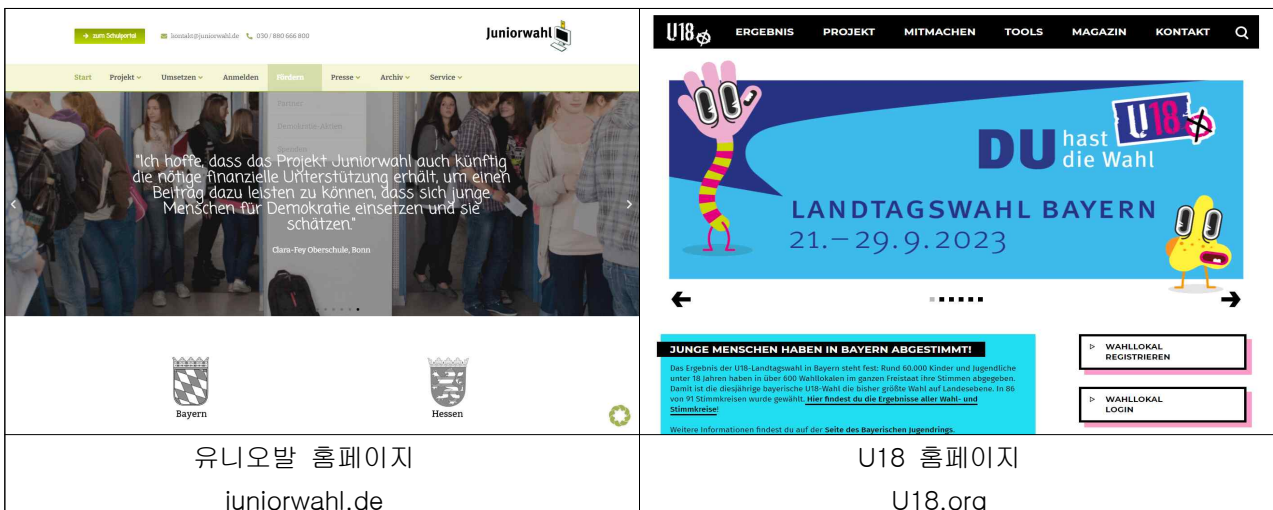
- 1999년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독일 최대 규모의 청소년 모의 투표 프로그램으로 7학년 이상의 학생이 대상으로 참여 여부는 학생 스스로 결정
- 청소년 모의 투표에 참여하는 학교는 약 한 달간 후보자 공약집과 토론회 등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
- 모의 투표는 연방의원선거,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등의 선거일 약 7일 전부터 실시하며 청소년들은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투표하고 그 결과는 실제 선거 당일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

○ 의회에서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료는 어떤 것인지?

⇒ 홈페이지에서 정치 및 의회에 대한 정보, 시사자료, 동영상, 팟캐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교사가 이 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 외의 독일의 다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 유니오발과 유사한 모의투표 프로그램(U18)이 있음.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정치인의 이름을 투표에 사용하는 점 등이 유사함. 모의투표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의투표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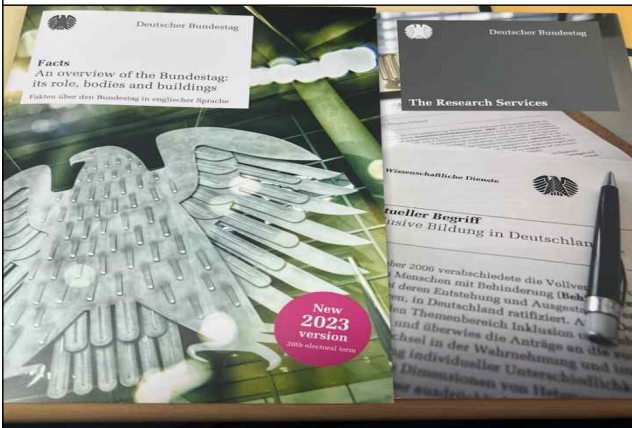
마.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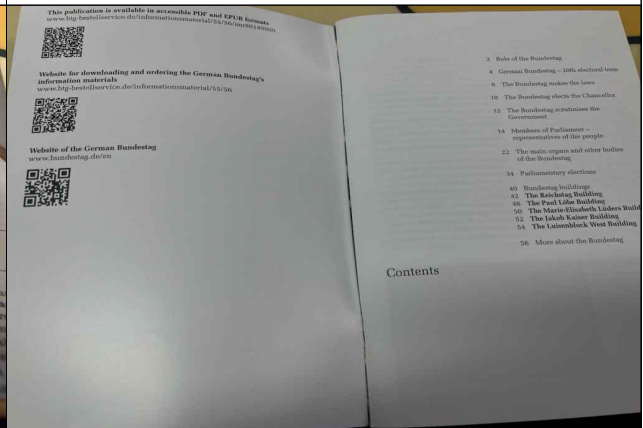
의회 직원과의 면담 진행 장면



면담 종료 후 의회 직원들과의 단체사진



의회 소개 소책자



의회 소개 소책자(펼침) 내
안내자료·홈페이지 연결 QR코드

▶ 독일 연방의회 기본 정보

1. 독일 연방의회 구성

- 연방의회(하원)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헌법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며, 연방의회의장으로 대표됨
- 연방의회의장은 관습적으로 최대 교섭단체에서 맡고 있고 연방의회 주요 인사의 인사권, 의회 가택권, 연방의회 내 경찰권을 가짐
- 연방의회 내 상임위원회는 15~42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로, 법안을 준비·논의하는 역할

2. 독일 연방의회 역할

- 연방의회는 연방법 제정·헌법 개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예산 의결 및 총리 선출, 정부에 대한 견제권 행사,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적 기능 수행
- 연방의회는 임기 중에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하원의 업무 및 프로젝트는 임기종료와 함께 종료(예외: 국민청원)

4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방문 면담

가. 면담일자: 2023. 9. 15.(금)

나. 장 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회의실

다. 면 담 자: Dr. Gernot Wolfram

라. 주요내용

※ 면담 당일 당초 예정된 면담자의 개인사정으로 면담자가 변경되어 기관연혁 등 전반적인 기관 소개 위주의 면담 진행

○ 연방정치교육원은 어떤 기관인가?

⇒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내무부 산하 민주시민교육 담당 기관으로 모든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지만 기관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연방 하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배경은?

⇒ 제1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적 혼란 속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나치즘이라는 서로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사상이 대두됨.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지 않은 독일의 상황에서 혼란한 시대 분위기에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음. 이 부분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 관용의 가치 등을 공고하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음.

○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목표는?

⇒ 시민들이 정치적·사회적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과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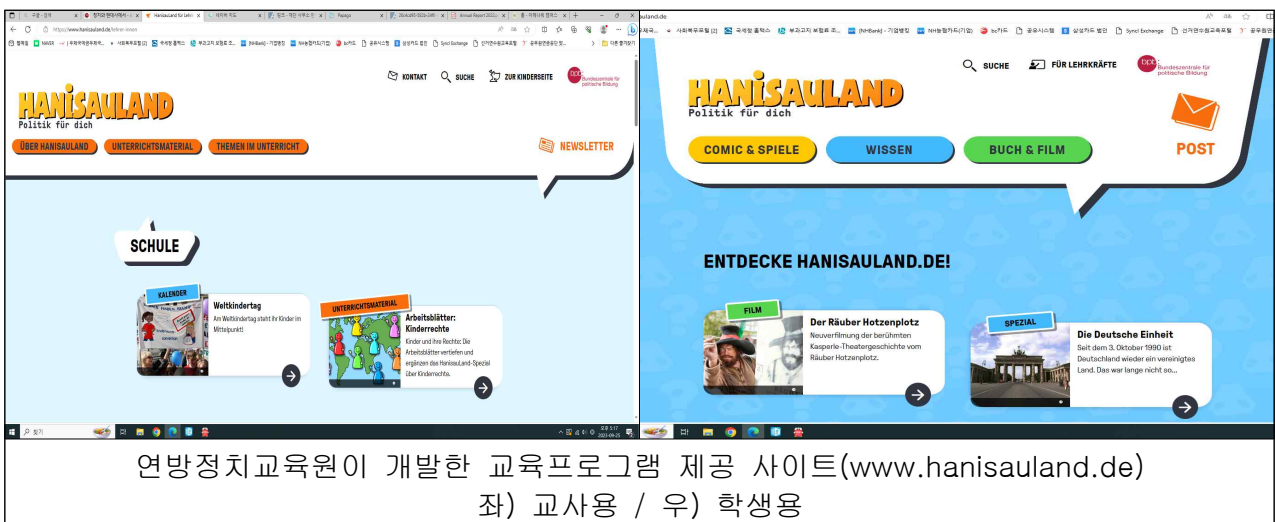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음. 다양한 연령 및 계층과 서로 다른 학습 능력, 교육 수요 등에 맞춘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및 교육 방식 개발 등을 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의 활동 내용은?

⇒ 회의, 세미나, 축제, 박람회, 문화 행사, 언론인을 위한 훈련 과정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판물 발간, 교육용 동영상 및 게임 제작 등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음. 정치에 흥미를 못 느끼는 청소년 대상 부서를 신설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및 커리큘럼, 영상 자료 등을 개발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이 운영하는 청년·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 연방정치교육원은 주로 학교 수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또 8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가 정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포털 사이트인 'HanisauLand(www.hanisauland.de)'를 운영. HanisauLand에서는 교육자료를 만화, 게임, 동영상의 형식으로 제작해 학생들이 정치·선거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교사용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교재 및 강의자료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료는 어떤 것인가?

⇒ 예를 들어 학생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정치·경제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취미활동 등 접근성이 높은 내용과 접목하여 책자·잡지 등 연령별로 다른 학습용 자료를 개발·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해당 언어로 제작한 학습 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음. 교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도록 워크숍,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음.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리플릿 등 각종 발행물

○ 교육자료 제공 외의 다른 활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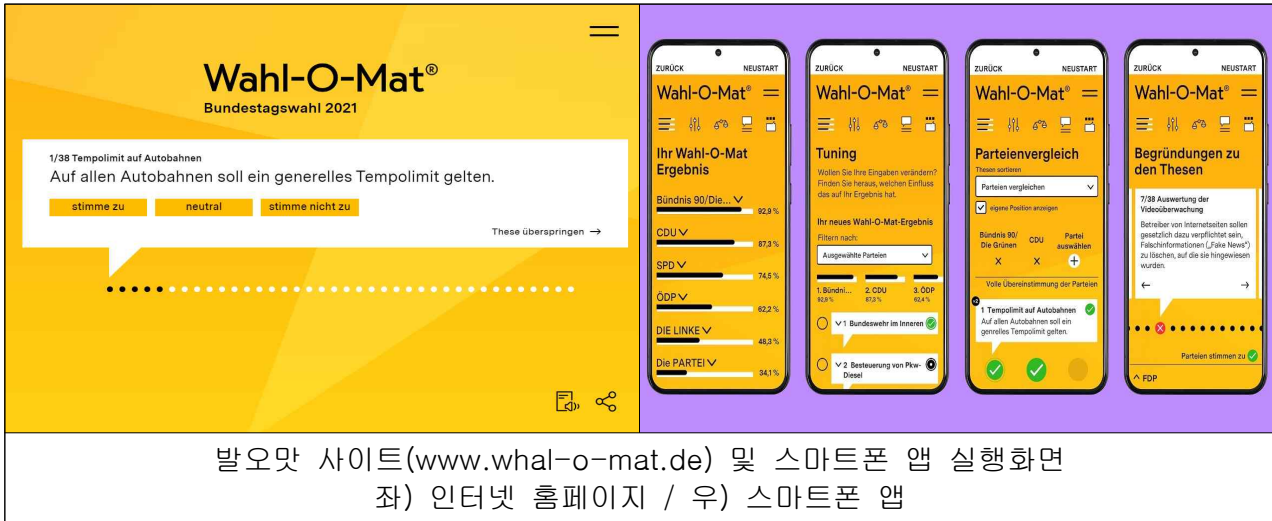
⇒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시민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NGO, 재단, 단체 등을 후원하기도 함. 최근 인플루언서·방송사 등과 협업하여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시민단체와 협업을 진행함.

○ 그 외의 기억할만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선호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통해 유권자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 혹은 정당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 '발오맛(Wahl-O-Mat)'을 개발, 보급하였음.

○ 발오맛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발오맛은 약 30여 개 질문에 대한 이용자의 답변을 분석하여 가장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정당을 보여줌. 사용 방법은 질문에 답변한 후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질문에 가중치를 둘 수 있고, 비교하고 싶은 정당을 선택하면 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음. 개별 질문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나 정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 또한 비교할 수 있음.



□ 발오맷(Wahl-O-Mat)

- 2002년 운영을 시작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에게 정당에 관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총 3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연방 선거에서 2,100만 번 이상 활용(2023년 10월 기준)됨
- 연방의회 선거의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 중 발오맷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정당을 대상으로 유권자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정당의 견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유권자의 답변과 비교·분석하여 정치적 유사성 판단
- 질문은 다양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당 간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주제를 짚은 유권자, 과학자, 언론인, 교육 전문가 등이 개발·선정

마. 관련 사진



연방정치교육원 직원과의 면담 진행 장면



연방정치교육원 미디어센터 외관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기본 정보

1. 설립 연혁

-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의회주의적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정치 규칙을 교육하기 위해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지역정치교육을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에서 출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즘 청산, 전체주의 방지, 민주시민 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1963년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됨
- 연방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음
- 4년 임기의 연방정치교육원장은 연방 내무부 장관이 임명

※ 본부는 본(Bonn)에 있고 베를린(Berlin), 게라(Gera)에도 미디어센터와 일부 사무실이 있음.

2. 연방정치교육원 민주시민교육 중점 내용

- 기본적으로 기본법에 입각한 자유, 평등, 법치주의, 인권 존중 등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함
- 시대별로 1990년대에는 통일 독일, 유럽통합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핵심 목표로 둠

3. 연방정치교육원의 역할

- 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육기관, 시민단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들의 행사 지원
-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안을 공유 및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진행 등 정치, 사회, 역사 등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

4. 주요활동

-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출판간행물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보급
- 교사 대상으로 정치·사회 및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 연령별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 등을 제공하고, 전문 네트워크 참여기회 제공
- 지역 언론인 맞춤형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포럼·세미나·워크숍 등 지역 언론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

5 체코 하원의회 방문 면담

가. 면담일자 : 2023. 9. 18.(월)

나. 장 소 : 체코 하원의회 회의실

다. 면 담 자 : Roman Bělor의원 등 2인

라. 주요내용

○ 체코 하원의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지?

⇒ 체코 하원은 200명의 의석으로 구성되고 4년마다 비례대표제(동트식)를 통해 선출됨.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며 의석 배분시 봉쇄조항이 있음. 정부 불신임 투표권, 대정부 질문권이 있고 매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 상원의 법안 거부권·법 개정안을 기각할 수 있음.

○ 의회 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얼마인지?

⇒ 중장년층이 주연령층이며, 20~30대 정치인 비중은 약 10% 정도 차지함.

○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 체코는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저항한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짐. 대략 1939년부터 젊은 운동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 체코 청년들은 환경, 지역문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음.

※ 사건으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공통의 원칙을 세우고 이견을 조율하는 팀 스포츠나 스카우트 활동 또한 크게 본다면 정치참여의 하나라 생각함.

○ 청년층의 정당 활동은 어떠한지?

⇒ 각 정당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층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구성원들이 미래의 정치인이 되고 있음. 청년 정당원들이 기성정치인에게 리프레시가 되는 아이디어를 주며, 기성정치인의 활동에 피드백을 주기도 함.

○ 청년층이 정당활동 외에 정치인이 되는 경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자기가 사는 동네 같은 작은 규모의 지방정치영역부터 정치경험을 쌓고 훈련받아 점차 중앙정치영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영역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음.

○ 체코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없으나 정치인 개인의 개별적 행태에 따라 조금 특이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 의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 의회가 직접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체코에서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NGO 등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음.

○ 앞으로 젊은 세대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인지?

⇒ 정치영역에서 본다면 젊은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젊은 세대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스스로 의견을 내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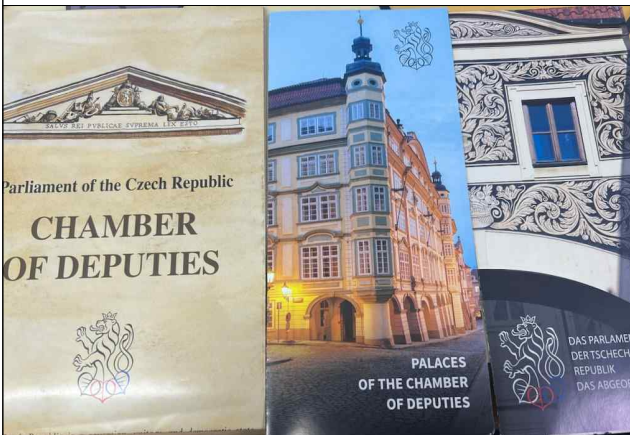
마.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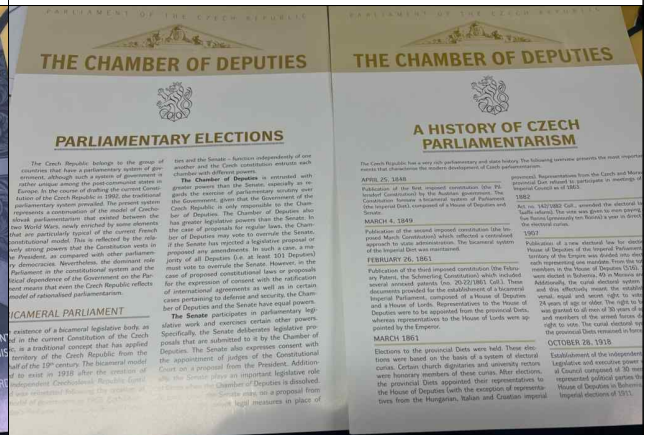
하원의원과 의 면담 진행 장면



면담 종료 후 단체사진



하원의회 소개 리플릿



하원의회 선거, 역사 안내 자료

▶ 체코 하원의회 기본 정보

1. 체코 하원의회 구성

- 체코의 의회의원(하원) 선거는 각 지역(14개)내 불구속명부식 기준에 따라 득표율로 당선인이 결정되는 비례대표제로 국민이 직접선거로 의원 선출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원 수는 200명
- 의회 내 상임위원회는 각 16~25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위원회, 경제위원회, 헌법 및 법무위원회, EU문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로 구성

2. 체코 하원의회 역할

-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권, 상원의 입법 제안 거부 혹은 수정안 제안 건에 대한 투표권 등
- 헌법, 국제 협정, 국방 및 안보는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그 외에는 하원이 상원보다 더 큰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평가

⑥ 체코 시민교육센터 방문 면담

가. 면담일자 : 2023. 9. 18.(월)

나. 장 소 : 체코 시민교육센터 사무실

다. 면 담 자 : Ondřej Horák

라. 주요내용

○ 시민교육센터는 어떤 기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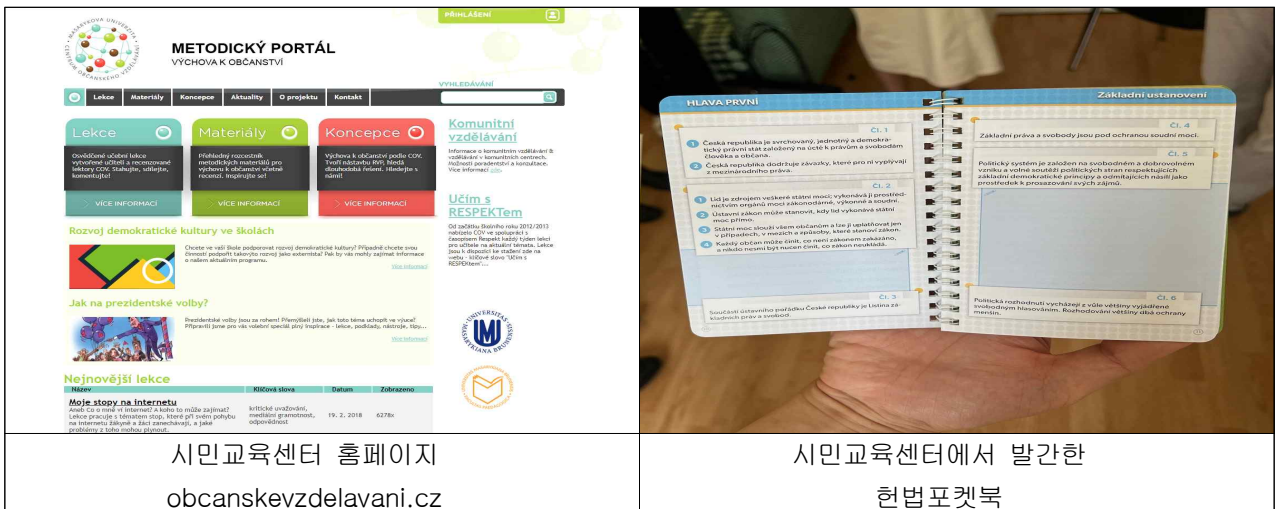
⇒ 시민교육센터는 과거 냉전 시대 집권당의 반민주적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치 문제 교육에 대한 대중의 뿌리 깊은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시민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개념과 전략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처음에는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NGO임.

○ 시민교육센터의 교육목표는 무엇인지?

⇒ 체코에 포괄적인 시민교육 개념을 도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센터의 임무로 설정하고, 체코 국민이 사회활동 참여 등 투표 이상의 정치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시민교육센터의 활동상황은?

⇒ 과거에는 COE(Council of Europe)에서 만든 인권 등 관련 내용의 책자를 체코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자료 번역·출판 등으로 시민교육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자체 자료 또한 제작하고 있음. 자체제작 출판물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헌법포켓북(Pocket Constitution)인데 체코 헌법을 수첩 형식으로 만들어 어린이 대상으로 보급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였다고 생각함. 또한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번역된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음.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
obcanskevzdelavani.cz

시민교육센터에서 발간한
헌법포켓북

○ 시민교육센터의 주요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

⇒ 처음에는 정치인, 지역 정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교사와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 학생들 대상 학교와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순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함양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학교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쌓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학교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학생들을 직접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됨. 이것 역시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식 전달 보다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 의회, 토론 등 민주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학교 관리자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은 별도 평가 없이 자율에 맡겨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민교육센터의 역할은?

⇒ 전반적인 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경험 쌓기인 만큼 시민교육을 대상자에게 강요하지 않으므로 학생과 교사가 먼저 연락해 도움을 원하면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실제 시민교육은 촉진자(Coordinator)가 실시하고,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촉진자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보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고 있음.

○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당시 시민교육을 정치적 세뇌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많았고 학교 교육에서도 정보 전달 위주였으나 현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함.

○ 시민교육센터와 같은 민간분야의 민주시민교육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우리 기관은 EU에서 NGO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펀드, 개인 혹은 기업에서 기부받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운영 중이므로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

마. 관련 사진



센터 관계자와의 면담 진행 장면



비치된 각종 간행물

▶ 체코 시민교육센터 기본 정보

1. 설립 연혁

- 2009년 교육청소년체육부(MŠMT)의 재정지원을 통해 브르노의 마사리크 대학교(Masaryk university)에 독립 분과 형태로 설립
- 2014년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Charles University)로 이전하였고, 2020년에 핵심 구성원들이 새로 NGO를 설립하여 활동 중

2. 시민교육센터 주요 활동

- 학교에서 시민 문제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적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권, 시민교육, 사회 문해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를 제공
- 학교와 대중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문제에 관한 강좌와 콘퍼런스를 개설하고, 학교와 교육기관에 시민 기술 발전을 위한 방법론적 지원 제공
- 시민교육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방법론적 지침을 번역·제공

V 평가 및 시사점

① 학습자 지향적 민주시민교육

가. 조력자로서의 민주시민교육기관

- 독일의 경우 공공영역·민간영역·정치영역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코의 경우 주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민간영역(NGO)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임
- 방문 기관 대다수의 공통된 특징은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보급, 회의·세미나·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조력 위주의 보조적 역할 수행
-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촉진자)를 양성하고, 교육수요자 혹은 교사·지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지원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함

나. 학습 수요자를 고려한 콘텐츠 제공

- 민주시민교육은 민족, 나이, 계층 등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의 공통된 민주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수법 등에 차이를 보임
-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① 사회 공통의 가치를 담고 있는 ②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조건에 맞춘 ③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가 필요함
- 방문 기관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함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미디어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민주시민교육 인쇄·출판물을 보급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의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홈페이지 개설·운영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아데나워 캠퍼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청년층의 정치토론 등 정치참여활동 독려를 위하여 틱톡 및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소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
- 체코 시민교육센터에서는 휴대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헌법포켓북을 발행·보급하여 교육수요자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며, 번역 작업을 통해 외국의 선진 민주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적인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

가. 청소년·청년의 정당 활동 참여 제도화

- 독일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어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 가입을 통해 청년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고, 수많은 정치인이 정당 내 청년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짐
- ※ 정당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당 가입 최소 연령은 주로 14~16세 정도

- 정당의 청년조직은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하여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 정당 청년조직 회원의 일반적인 연령대는 14~35세에 분포
- 정당 내 청소년·청년조직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한 결과 독일 하원의원의 40대 미만 청년 정치인 비율(26.2%)은 우리나라(3.72%, 제21대 국회의원 기준)보다 약 7배 이상임
- 체코 역시 정당에서 청년층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역량을 키우고, 정치 엘리트로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육성되고 있음

나. 현실 정치에 접목한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이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이론에 집중하고 현실과 괴리될 때 교육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론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는 현실 정치에 접목한 대표적인 학생 대상의 정치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모의선거는 학생들이 주권의식과 투표의 중요성, 정치 참여의식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청소년 모의선거는 청소년의 선거·정치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큰 효과를 보이는 정치교육으로 판단됨

③ 시사점

가.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정립 및 법제화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주체·교육목적·교육대상 등 조건에 따라 그 외연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교육 방법론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정립이 필수적임
- 현재 조례를 근거로 진행되는 공적 민주시민교육과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
- 민주시민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고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전환

-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유권자와 미래유권자에 대해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국제회의·세미나·콘퍼런스 등 행사를 개최함
- 향후 직접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연수 비중을 줄이고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보급과 국내외 다른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 및 전문가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역량 집중이 필요할 수 있음
- 수요자 중심 교육콘텐츠 제작 및 기존 콘텐츠 개선·보완에 집중하고,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혹은 전문적 촉진자가 담당하도록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분업화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또한 공적·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 교육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지식전달 과정이 아닌 교육대상자의 민주적 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실천적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됨

- 학교 차원의 교육에서는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처럼 단순 모의투표 체험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표 후 사후평가 및 토론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현실의 사회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두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육성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독일 정당 차원에서 운영하며 성과를 낸 청년조직을 비교·분석 해 볼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주권 의식 발현의 하나로서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덧붙임 1. 독일 연방의회 안내 책자 1부(별첨).
2. 독일 연방의회 연구원 안내 리플릿 1부(별첨).
 3. 체코 의회 안내 리플릿(5종) 각 1부(별첨).